

국제관광시장 재개 · 활성화 총력

전북도 · 14개 시 · 군 ·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 태권도진흥재단 · 전북문화관광재단 '제11회 전북트래블마트' 개최... 베트남 · 필리핀 · 중국 등에 영상 송출 전북 관광자원 홍보

전북도가 14개 시·군,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태권도진흥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제11회 전북트래블마트'를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순창군 국민체육센터와 주요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했다.

'전북트래블마트'는 전북도가 2015년부터 14개 시·군, 관계기관, 민간업체와 협력해 전북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해외 한인단체 및 협·회장, 한·중 관광 관계자를 비롯한 협·단체, 학회, 인플루언서, 관광코디네이터 등 관광 관계자 250여 명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광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해 관광 상담회, 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2021년 전북트래블마트 행사'는 베트남의 공영방송 VTC & VTV 뉴스에 방영(6. 28 예정)할 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중국(사천성) 관련 단체에도 영상을 송출(7월 초)할 예정이다.

도는 이처럼 다가오는 국제 관광시



전북도가 14개 시·군,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태권도진흥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제11회 전북트래블마트'를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순창군 국민체육센터와 주요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했다.

장 재개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와 시·군, 관계기관(한국관

공공사 전북지사, 태권도진흥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정부의 '여행 안전권역(트래블버블)' 개시가 예정

되어 따라 '단체관광상품(안심 방한 관광)'을 위한 전북 관광자원 알리기에 총력을 펼쳤다.

첫째 날에는 무장에 여행 전문여행사 무빙트립 신현오 대표의 '열린 관광과 특새시장 마케팅'에 대한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상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했다.

둘째 날에는 순창의 주요관광지를 탐방하며, 관계자는 관광상품을 소개했다.

국내·외 인플루언서는 관광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유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와 힘을 합쳐 코로나를 극복하고 국제관광시장 재개와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최우수'

전북도, 투자사업 성과평가서 7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전북도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7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도는 시·도 평가를 시작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내년도 예산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4인 기준 5,85만2,000원)의 도민을 대상(일부 서비스 제외)으로 하는 이 사업은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크게 3가지 사업으로 운영

된다.

이번 평가에서 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용자 특성별 맞춤형 홍보와 서비스 제공, 서비스 종결자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활성화한 점과 지역별 공급격차 완화를 위해 농촌지역 제공기관 및 사회조직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회서비스 창업스쿨 운영, 공공인력 급여공시제, 제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시행 등 특화된 전략과제를 운영한 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은 "7년 연속 최우수 기관 수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북도와 전북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시·군 및 읍·면·동 그리고 제공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최고수산경영자과정 교육생 모집

전북도가 군산대학교(해양과학대학)에 위탁해 운영하는 '제5기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의 교육생 20명을 오는 7월 2일까지 모집한다.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은 전북도 수산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경영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교육은 5개월 과정으로 수산업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교과 과정은 ▲국내·외 선진화 양식기술정보 제공,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대응, ▲패류양식장 채취어구 등 전공·교양 교육과 현장실습을 포함해 내실 있게 구성됐다.

도는 교육생에 교육비 90%를 국비 및 도비로 지원한다. 모집대상은 전북도에 거주하는 수산업(패류관련 경영자 우대) 관련 경영자 및 종사자이다.

오는 7월 2일 오후 6시까지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행정실(문의 460-1782)'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공모 남원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의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지난 2018년 완주군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남원시가 연말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남원시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억 원(국비 4억, 시비 4억)을 들여 올해부터 2년간 관광거점별 안내표지판, 대중교통 안내 시스템 등 사용자 중심의 안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1단계 관광안내체계 구축 구간으로 남원역 등 대중교통 시설에서부터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한국관광 100선 선정),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등 남원 도심 관광지역을 아우른다.

이어, 2단계는 지리산 둘레길(1~3코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 등 남원생태관광지역으로, 향후 지리산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면, 지리산권 전체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중국사무소, 올해 두 번째 수출계약

익산 식품클러스터 내 공장 운영 중인 'N사' - '상하이 초다오 공인리엔커지 유한공사' 체결

전북도 중국사무소가 올 들어 두 번째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도 중국사무소(소장 이지형)에 따르면, 지난 21일 익산 식품클러스터 내에 공장을 운영 중인 'N사'와 '상하이 초다오 공인리엔커지 유한공사' 간 '중국판매 및 물품공급'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향후 80만불(약 9억 원) 규모의 청포도, 복숭아, 사과 등 N사 음료제품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이는 전북도 기업지원과와 중국사무소의 적극적인 업무 협업을 통해 이룬 성과로 의미가 크다.

중국사무소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후,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 선도기업 중 하나인 N사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4차례나 상



담회를 진행할 만큼 중국 바이어들로부터 날다른 관심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월 1일에는 이번 계약 당사자인 '상하이 초다오 공인리엔커지 유한공사' 현웅군 대표가 설립한 상품 판매 플랫폼인 '지우싱(九星)'과 '전북도 상품 홍보 및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번 계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우싱(九星)'은 중국 시장을 개척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업체로 기업에 국제물류, 중국

국내 참고보관, 택배물류, 유통망, 공급망 금융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사무소는 지난 4월, (주)강산명주와 중국 유통회사인 '상하이준성국제무역유한공사' 간 뽕주와 복분자주 수출·수입 계약을 체결을 성사시킨 데 이어, 이번 계약 성사도 이어져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지형 전북도 중국사무소장은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현웅군 대표는 1999년부터 한국 상품을 유통해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상하이 자강구에 한국전용상품관을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 대표는 한국전용상품관 운영을 통해 온·오프라인 동시 판매 및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전북상품의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지방세 연찬회 개최

전북도가 지방세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2021년도 지방세 연찬회'를 지난 24일 진안고원치우숲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연찬회는 코로나 위기 극복 등 변화하는 지방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방안, 지방세 제 개선방안에 대해 시·군에서 제출한 14건의 연구과제 중 사전 서면심의를 통해 선정된 6개 사례에 대한 발표 및 토론, 2021년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 대한 시상, 특강 및 지방세정 현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구본홍 자치협력실장, 도 지방세심의위원 등이 평가위원으로 함께 참여해 공정하고 객

관적인 심사를 도왔다.

연구과제 발표 결과 익산시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자동차의 효율적인 과세 방안'에 대한 고찰이 최우수 과제로 선발됐다. 연구과제를 준비하고 발표한 정승욱 주무관은 하반기에 개최되는 행안부 주관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에 전북도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진안군에서 발표한 '땀 시설 지역지원시설을 통한 세수확대 방안', 군산시의 '선박인류등기 전자촉탁 실행방안'이 우수상을, 부안군에서 발표한 '농가경영회생제도 연구를 통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선방향 및 지방세수 확충방안', 남원시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임실군의 '픽업트럭 자동차세 과세 방안'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유호상 기자

소규모 자력 개간사업 공고

1. 사업목적: 전 조성을 위한 개간공사 시행 (밭작물(두부, 참깨))
2. 사업명: 소규모 자력 개간사업
 - 사업시행자: 김현진
3. 위치: 고창군 해리면 방축리 산12번지의 1필지
4. 사업시행면적: 8,265㎡
5. 사업개요(예상감보율 포함): 예상감보율 0%
 - 준공후 토사수량(300x500x300), L=352.0m, 흙관(D600), L=8.0m, 집수정(1.0x1.0x1.0)1개소
6. 총사업비 32,398천원
 - 국고: 0천원
 - 지방비: 0천원
 - 자부담: 32,398천원
7. 사업기간: 2021년 6월 ~ 2022년 6월 30일
8. 사업계획 열람장소: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 *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15일
 - * 의견(이의신청)제출 기한: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처: 고창군 건설도시과)

2021년 6월 28일 고창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